

여야 쟁점법안 협상 난항 계속

김 의장 상경...어떤 선택?

미디어법·한미FTA 놓고 '협의' '합의' 대치 협상은 계속...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 열어봐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주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30일 두 차례 교섭단체 대표회담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마지막까지 난항을 거듭했다.

이날 협상에서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방송관련법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 중 '협의처리'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 원내대표는 이를 2개 안건에 대해 '합의처리'를 요구하며 맞섰다.

우선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악법'으로 규정,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힌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연내 처리' 방침을 수정, 2월 중 처리를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협의 처리' 약속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2개월 처리를 연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주장,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협의 처리'는 여야간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한 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을 뜻하며, '합의 처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에서 처리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즉,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2월 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져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및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는데 야당이 받지 않는다면 결렬"이라며 "더 이상 양보해서도 안 되고 대화할 길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원혜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은 (법안 처리 시한을) 2개월 연명하는 것일 뿐"이라며 "한미 FTA 비준안 및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주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이 30일 국회에서 만나 법안처리 등 여야 대치상황 해결을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게 우리의 최후 타협선"이라고 못박았다.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싼 입장차는 우선 '언론·미디어'에 대한 접근법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언론을 미디어산업이라는 시각에서 접근, 시장 기능 강화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우선시하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현 정권

의 언론 장악 음모로 보고 있다.

또 한미 FTA 비준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이미 논의할 만큼 논의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놓여준 대책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단독 상경과 이 과정에서 격렬한 물싸움, 고소·고발전이 양측의 의견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 준비...직권상정·경호권 발동 주목

여야 대치의 한 중양에서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30일 서울로 돌아오면서 국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 의장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공언한 것은 '31일 민생법안 처리'와 '국회 접거해제', 이 공언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 조치를 취할지 또는 다른 대안을 내놓을지 김 의장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전날 자신의 중재안에 대한 여야와 언론의 비판 기류에 대해 "언론이 행간을 읽지 못한다"면서 "중재안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섭섭해 했다.

그는 특히 "31일까지 민생법안 처리는 여야합의라는 정상적 방법뿐 아니라 기타의 경우를 다 포함한 의미"라며 "정상적인 협의 처리가 제일 좋지만,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손을 댄다면 그 책임은 여야 지도부 아무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결렬시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 김 의장은 "만약에 안됐을 경우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이후에 방법을 생각하겠다"면서 "기본입장은 이미 밝혔다"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또 본회의장 경호권 발동과 관련, "협상 중인데 발동할 수는 없다"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3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합의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야 협상 결렬이라는 최악의 경우 민주당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경호권 발동 및 직권상정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측근은 "기본적으로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일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질서 회복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수리장 국회의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형오의 뉴스쇼'에 출연, "쟁점법안은 내내으로 미뤄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경호권 발동과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신년 화두는 '扶危定傾'

(부위정경)

청와대는 30일 내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부위정경'(扶危定傾)을 선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새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부합하는 신년화두를 정하기 위해 각계의 추천을 받고 내부 논의를 거쳐"면서 "정법진 전 성균관대 총장이 추천한 사자성어를 신년 화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북주(北周)의 역사서인 '주서(周書)'에 등장하는 부위정경은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

운다"는 뜻으로, '태초가 위기를 맞아 나라를 안정시켜 그 위엄과 권위가 왕을 두렵게 했다'(太祖 扶危定傾 威權震主)는 문구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돼 전대미문의 현 경제위기를 극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나라를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배어 있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당정, 쌀 직불금 신청·수령자 인터넷 공개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쌀소득보전 직불금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신청자 및 수령자에 대한 인터넷 정보공개와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계진 정책결정위원회 의원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의원들과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쌀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지급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30일간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한 뒤 2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정보공개 범위에는 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의 성명, 법인명, 신청면적, 직불금 수령액이 포함된다.

당정은 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농촌 이외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농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할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직불금 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하천구역 내 농지 중 1년 이상 농업에 이용가능한 농지도 직불금 지급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제 안정때까지 이념법안 추진 말라"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통합에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경제안정 때까지 국민 분열과 혼란을 부르는 이념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배후에 이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 후퇴와 독재 회귀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지금무능하고 무모한 권력이 민간독재를 향해 돌진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MB악법" 무더기 직권상정은 국민의 대량 배신"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나아가 "만약 국회의장이 권력의 부당함 요구에 굴복한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게 아니라 국민의 불행, 역사의 오점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편에서 서서 날치기 범죄의 주도자가 될지, 아니면 국민 편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지, 국회의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09 국가직(9급:4월 11일), 7급(7월 25일) 지방직(9급:5월 23일), 7급(9월 28일)

겨울방학 공무원 대개강

일자: (차) 1월 2일 (차) 1월 5일

가강당일은 접수창구가 혼잡하오니 사전접수바랍니다.

www.hanbitgosi.co.kr

전국최고의 시설 대형학원!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에 다 있다.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겨울방학 대개강 (차) 1월 2일 (차) 1월 5일

공무원 합격 압도적 1위

합격률이 말하는 최고의 강의 79급 슈퍼드림팀

해당기간에도 필수과목 한강단과반

주부/대학생/직업인용 위한 9급 야간특설반

민생법안/교육법/세무/경비/방화/경찰/교정/보훈/사회복지/스펙/출판/농림/전산/기술직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겨울방학을 맞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총출발!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7.9급 공무원 특강

30주부특별반

10월기능직필

해교세관감법검마철출교보보복전소기단

정육무세사원찰약공관정건호지사방술과

11월기능직필

11월기능직필

'09년 시험안내

개강 1월 2일 (주·아·반·모임)

내년 소방직(사·도·별 채용인원)

1월 2일 (주·아·반·모임)

www.mdgosi.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최강의 교수진! 저자적강!

주책관리사 "2009년 9월 시험 예상" 첫진도 개강 1월 2일

광주고시학원

첫진도 (기본서 이름) 개강 1월 2일

직업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지원 개강일대강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청원 ☎ 971-0002 광주은행 침탄동 4층

새롭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목포점 개강 1월 2일

하당지구 목포지동별 앞대성학원 3층 건물 (061)277-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45개 학원제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인문과 신리틀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학장이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롭빌딩 4층